

연구논문

# 중국 용정지방 달라재 전통농가의 접객 장소와 접객행위

고도임\*·윤복자·최형선·박경난

\*카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 Reception Behavior and Places for Guests of the Dallajae Traditional Farmhouse in Lungchin, China

Koh, Do - Yim\* · Yoon, Bok - Cha · Choi, Hyung - Seon · Park, Kyung - Nan

\*Dept. of Consumer & Housing, Catholic Univ.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Yonsei Univ.

**Abstract** : This paper is a part of "The Study of the Traditional Korean Ethnic Farmhousing in Yanbian, Ch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ception behavior and places for guests of the traditional farmhouse.

In this study, a survey using questionnaire was conducted in which one hundred and twenty four farmhouses were analyzed thoroughl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 1) Most frequent guest receptions among Dallejae residents are casual meetings of relatives and non-relatives, husbands' birthday parties, one-year birthday parties of children, wedding receptions, and Whankap (sixtieth birthday party).
- 2) They receive guests and serve them at Chung-ji-kan and Oot-bang.
- 3) Reception behavior has undergone change along with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al changes. They receive guests with much more hospitalities than before. Only memorial services are simplified compared to the past.

**Key Words** : traditional farmhouse, guest reception behavior, Chung-ji-kan, Oot-bang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주택이라는 물리적인 구조체와 그 안에서 생활

하는 사람은 모두 환경 체계에 둘러 싸여 있어서 직접, 간접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여러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주택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의식, 생활 행위 등이 변화하게 되며 반대로 환경에 영향을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 1996년도 국제협력과제로 카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와 연변대학 조선문예연구소의 공동연구의 일부임.

미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주택도 기후 요인을 포함한 자연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아 지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 문화적인 환경 요인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주자의 생활도 변화를 거듭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8·15 해방을 계기로 남북으로 분단되어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분리된 국가 체제로 50년 넘는 세월을 지내고 있어서 민족의 이질성이 더욱 뿌리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전통 주택에 대한 연구는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본 궤도에 들어선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통례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1970년 이후부터 전통 주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남한 지역의 전통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북한의 전통 주택을 연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런데 다행히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sup>1)</sup>에 대한 실상이 알려지게 되었다. 즉, 함경도 지역 주민이 많이 이주해서 조선족 부락을 형성하고 있는 연변지역 농촌의 경우 함경도형 전통 주택을 짓고 거주하고 있어서 북한의 전통 주택과 농가를 추측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호도거리제도<sup>2)</sup>가 실시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농가가 전통 농가를 헐고 새 벽돌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로 전통 농가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이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총체적인 조사 내용 중에는 물리적 구조체인 공간과 시설·설비,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실생활에 대한 것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 교류를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문화권을 막론하고 접객 행위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여러 의식인 통과의례도 개인의 행사가 아니라 가족, 나아가서는 마을의 축제로 여겨지는 만큼 하나의 접객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접객 행위는 사회와 생활양식의 변화, 경제 수준의 향상, 접객에 대한 의식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 중 어떤 접객 행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도 하며 어떤 것은 전통성이 강해 과거 그대로 지속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중국 조선족의 접객 행위는 우리 나라의 접객 행위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 농가에서 생활하는 조선족의 생활행위중에서 접객 행위를 생활접객과 가정의례로 나누어 접객장소와 접객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중국 조선족 전통 농가에서의 생활접객 행위에 대한 접객장소와 내용을 파악한다.
- 2) 중국 조선족 전통 농가에서의 가정의례 접객 행위의 변화를 파악한다.

## 2. 용어 정의

### 1) 접객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 이외의 사람을 집이나 외부에서 접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접객에는 생활접객과 가정의례에 관련된 접객이 있다. 생활접객은 일상적인 접객, 생일잔치와 친구 모임, 당모임, 종교행위와 관련된 접객, 그리고 집들이와 축하모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정의례에는 환갑·칠순 등의 잔치와 제사, 그리고 백일, 돌, 혼인, 장례 등의 통과의례에 관련된 접객이 있다.

### 2) 접객 행위

생활접객과 가정의례시 손님을 얼마나 자주, 어느 장소에서, 어느 정도로 대접하는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1) 조선족을 한민족(韓民族)이라고 하는 게 더 타당하지만 한족(漢族)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조선족이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조선족 자신들이 한국족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2) 중국에서 집단으로 경작하던 농토를 가구별로 배분한 토지개혁 제도로서 1978년에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인 연변 지역에서는 이보다 늦은 1982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했는데 이 결과 농민의 노력 여하에 따라 농가의 경제 수준이 가구마다 달라지게 되었다.

### 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조사의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방법과 설문지 조사방법을 이용한다. 즉, 연변 조선족 전통 농가의 물리적, 생활 문화적 측면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 면접, 관찰, 스케치 등으로 자료수집을 하는 현지조사 방법과 더불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면접한다. 설문지는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 주택특성, 일상적인 접객행위와 가정의례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함경도 지방의 전통주택이 많이 남아 있는 촌락 중에서 조선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촌락, 초가집과 기와집 등 전통농가가 많은 촌락, 그리고 현지 정밀조사가 용이한 촌락을 선정하기로 하고 이들 조건에 맞는 달라재지방<sup>3)</sup> 즉, 길림성 용정시 지진진의 명동촌, 신동촌, 영암촌, 대홍촌의 4개 자연부락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한다. 조사대상 농가는 새로 지은 농가와 벽돌집을 제외한 건축된 지 10년 이상이 된 전통 농가로 하며, 설문지 응답자는 40세 이상의 주부나 가구주, 혹은 노주부로 제한한다.

연변대학 조선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1996년 11월부터 1997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본조사와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가구는 총 126가구이며 이 중 124가구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수, 백분율, 분할표 분석 등을 하였다.

### 4. 문헌고찰

국내에서 이루어진 전통농가에 대한 연구는 물리적 특성을 다룬 연구, 생활과 공간을 다룬 연구 및 기타 연구로 나눌 수가 있다. 물리적 특성을 다룬 연구로는 주로 농가의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한 조성기(1985)의 연구와 농민들의 주거공간 요구와 방향을 파악한 박경옥(1987, 1988)의 연구가 있다. 생활과 공간을 다룬 연구에는 조재순(1978), 이원(1987), 이동락(1988), 한필원(1987), 장덕찬(1990), 윤정숙외(1989, 1990),

최병숙(1988), 유옥순(1988), 고도임(1991)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현지조사를 하여 생활행위와 주거공간과의 대응관계를 밝히거나 변화과정을 파악한 연구이다. 기타 관련연구로는 주거생활사를 다룬 홍형옥(1980), 농촌과 도시의 주거양식을 비교한 최찬환(1980), 한국 전통민가 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다룬 강영환(1989)의 연구 등이 있다. 그리고 접객행위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접객행위를 주제로 다루기 보다는 주택내에서 일어나는 생활행위 중의 한 가지로 분류하여 각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조선시대의 접객행위와 현재의 접객행위를 비교한 연구로 최형선(1996), 윤복자·박경남(1997)의 연구가 있다.

한편, 조선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룬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조선족의 일상적인 생활양식을 다룬 것으로 박경휘(1987), 집필소조(1988), 김숙련·김영림·채영춘(1991), 차명숙(1992), 한상복·권태환(1993), 박경휘(1994), 천수산(1994), 국립민속박물관(1996), 권태환(1996) 등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은 의식주 생활, 혼인, 의례, 종교, 언어와 문자, 가족관계, 부락생활, 일반적인 사회경제활동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상복·권태환(1993)의 연구는 조선족의 이주역사, 신중국 형성 이후의 인구 변동, 생활경험, 국가 및 민족의식, 행동양식과 가치지향, 가족과 혼인 및 친족, 공동체의 구조와 변동, 직업구조의 변화와 기업가 정신, 농업의 특성과 구조, 의식주 생활, 언어생활, 교육수준과 이념, 의례생활, 건강과 질병 등에 걸쳐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이다. 또한 박경휘(1994)의 연구는 조선족의 의식주 생활풍습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주생활과 관련해서는 주택의 형성과 발전과정, 주택의 기본형태, 집짓기 풍습, 주택치장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1996)의 연구는 연변 조선족의 사회적 배경, 촌락구조, 혼인 및 가족생활, 직업과 경제생활, 의례와 신앙생활, 언어생활, 의식주생활, 농기구,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등에 대한 심층연구이다.

3) 달라재 : 용정지방의 명동촌, 장재촌, 신동촌, 영암촌과 대홍촌 일대의 옛날 명칭으로 한문으로 대립자(大拉子) 또는 대랍자(大拉子)를 달라재로 불렀다.

둘째는 조선족의 개항과 농가에 대한 연구로서 취락구조, 건축구조와 공간 및 재료의 특성, 주거 형태, 주생활 등을 분석한 연구인데 장보웅(1992), 울산대학교 건축연구소(1994), 강영환(1994), 김봉렬(1994), 신재억(1994), 김종영 외(1996)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셋째는 조선족의 민족성, 역사 의식, 민족의식 등을 다룬 것으로 김광역(1987), 전경수(1989), 이광규(1992) 등의 연구가 있다. 연변대학(1995)의 연구는 조선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연구로서 중국 한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조선족의 우열성을 점검하는 시도를 하였다.

## II. 접객장소와 접객행태에 대한 조사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배경

#### 1) 달라재 마을 개관

중국 동북지방인 길림성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1952년 조선족 자치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4)</sup>. 연변 조선족 자치주내의 조선족 인구는 82만 여명이며, 이중 반수 정도가 연길, 용정, 화룡 3개시에 살고 있다<sup>5)</sup>.

용정시는 연변 자치주의 중남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5개의 진과 20개의 향, 그리고 226개의 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인 지신진은 용정시에 속해 있으며, 신동, 명동, 대흥, 동신, 원동, 성남, 덕수 등 10개 촌과 33개의 자연툰<sup>6)</sup>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10개 촌 중에서 신동, 명동, 대흥촌과 영암촌(지신 10툰) 등 4개 촌의 124가구를 정밀조사하였다.

개촌 시기를 보면 명동, 대흥, 영암촌이 19세기 말인데 비해 신동촌만 20세기 초이며, 조선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2)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평균 가족수가 3.25명, 동거가족수가 3.0명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족수가 적은 것은 핵가족화와 더불어 자녀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며, 가족수에 비해 동거 가족수가 적은 것은 자녀가 도시로 유학을 나가 있거나, 돈을 벌러 타도시나 다른 나라로 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0년 현재 연변의 평균 가구원수가 3.6명<sup>7)</sup>인데 비해 본 조사대상 지역의 가구원수가 더 적은 것은 통계치 보다 조사 시기가 6년 후인 1996년이므로 차이가 났거나 농촌의 경우 가구원수가 더 적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가족 유형을 보면 노인부부 가족이 32가구, 1인 단독 가구가 2가구로서 27.4%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젊은 층의 이촌향도 현상과 더불어 농촌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가구의 호주 평균 연령은 52.9세, 주부의 평균 연령은 50.9세로서 남편보다 주부가 2세 정도 낮았다. 호주와 응답자의 교육정도를 보면 남자와 여자의 학력에 차이가 있어서 주부가 남편보다 문맹인 비율이 더 높았다. 직업은 124가구 모두 농업이었고, 종교의 경우 무교가 91.0%로 가장 많았으며 천주교(3.2%)와 기독교(3.2%)가 약간 있었다. 조사대상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보면 가구당 평균 논 면적은 2,269㎡, 평균 밭 면적은 16,351㎡이었다. 논에는 주로 쌀과 찹쌀을 경작하고 밭에는 주로 옥수수과 콩, 연초, 조 사탕무, 잡곡 등을 재배한다. 경제 작물로서 연초와 사탕무를 재배하는데, 연초를 재배하면 소득이 높다고 한다.

연 평균 소득은 평균 10,843원<sup>8)</sup>이며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0,000원으로 나타나 호도거리 제도 실시 이후 빈부의 차가 많이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조사대상 가구의 주택 특성

조사대상 농가의 건축연대는 다양한 분포를 보이

4) 집필소조(1988). 중국의 우리 민족. 도서출판 한울. pp.13-19.

5) 한상복·권태환(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대학교 출판부. p. 51.

6) 자연부락의 개념으로 한 개의 작은 마을을 의미하며, 툰이 모여서 촌을 이룬다. 참고로 명동촌은 7개의 툰으로 이루어져 있다.

7) 권태환(1996). 세계의 한민족 : 중국, 통일원. p. 143.

8) 1원(元)은 한국 돈으로 약 100원이다.

지만 1966~1977년 사이에 지은 집이 가장 많았다.

주택규모를 칸수와 면적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칸수를 보면 최소 4칸에서 최대 8칸까지 있으며, 5칸집이 43가구(34.7%)로 가장 많고 4칸집 36가구(29%), 6칸집 29가구(23.4%)의 순이었다. 전체 평균 칸수는 약 5.2칸으로서 원래는 8칸집 또는 6칸집이었던 것을 가족수가 줄어들어 따라 방이나 창고를 넓게 쓰려고 벽을 헐어 내어 사용하고 있었다. 면적을 보면 최소 30.8㎡(9.3평), 최대 84.0㎡(25.4평)이었으며 평균면적은 51.1㎡(15.5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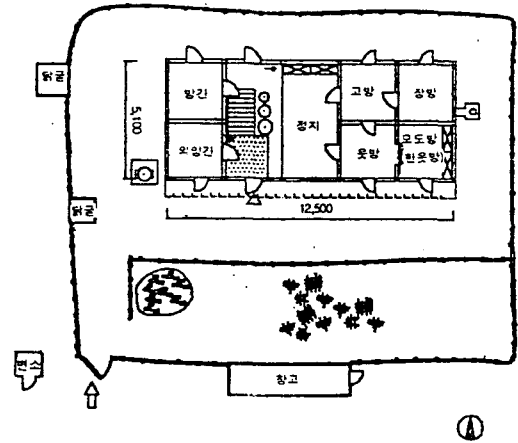
집터의 크기는 차이가 많이 나서 최소 70㎡, 최대 10,005㎡이었으며 평균은 711.5㎡였다. 집터에는 본채와 더불어 부속채를 짓고 텃밭을 가꾸어 담배나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

주택의 향은 남향이 94가구(75.8%), 동남향이 18가구(14.5%)이었다. 지붕재료는 초가지붕이 70가구(56.5%)로 가장 많고 양기와 43가구(34.7%), 한기와 11가구(8.9%)이었다.

주택의 평면은 함경도식 겹집으로서 <도면 1>과 같이 부엌공간과 정지 구들사이에 벽이 없는 게 특징이다. 이 정지간을 중심으로 가족생활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며, 이 정지간을 거쳐서 옷방, 한옷방, 고방, 한옷고방으로 들어가게 된다. 또한 부스캐<sup>9)</sup>와 바당<sup>10)</sup>에서 창고와 쇠오양(가축우리)으로 출입하게 되는데 이는 겨울이 길고 추운 지방에서 부스캐에서 불을 뿜 때 나오는 더운 공기를 쇠오양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조사대상 농가의 취사설비는 나무를 연료로 하는 가마솥이 대부분이었고 보조수단으로 전기채가마<sup>11)</sup>와 가스채가마, 또는 가스레인을 사용하고 있었다. 난방은 나무를 연료로 하는 아궁이식 온돌로서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이었다. 조명은 백열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형광등과 백열등을 같이 쓰는 경우였다. 급수시설로는 전기모터가 달린 펌프가 가장 많았고(50가구, 40.3%),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39가구(31.

5%)였다. 그러나 급수시설에 비해 하수도가 있는 가구는 44가구(35.5%)에 불과했다.



<도면 1> 신동촌 이영삼 씨택(함경도식 겹집의 특성을 갖추고 있음)

### 3. 조사대상 가구의 접객행위

조사대상 가구의 접객행위를 생활접객과 가정의례로 나누어서 고찰한다.

생활접객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접대와 특별한 이유 없이 일상적으로 하는 접대로 나눌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접대도 빈도에 의해 나누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생일잔치와 이사했을 때만 하는 집들이가 비교적 접대빈도가 낮은 접대이며, 이밖에 동창 또는 친구모임, 당모임, 종교모임, 축하모임 등은 비교적 접대빈도가 높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오다가다 들르는 일상적인 손님에 대한 접대는 특히 농촌마을의 경우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정의례는 환갑·칠순 등의 잔치와 제사, 그리고 백일, 돌, 혼인, 장례 등의 통과이례로 나눌 수가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런 생활접객과 가정의례에 대해 얼마나 자주,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접대했는지에 대해 기술한다.

9) 부스캐(뽀스칸) : 불때는 아궁이가 있는 곳으로서 도면상에서 널마루가 있는 부분

10) 바당 : 부엌의 출입구쪽 흙바닥으로서 신발을 신고 벗는 곳

11) 오목하게 생긴 볕음용 후라이팬

1) 생활 접객

(1) 접객 빈도

생활접객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접대와 특별한 이유 없이 일상적으로 하는 접대로 나눌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접대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생일잔치와 같이 일년을 주기로 하는 모임, 이사갔을 때에만 하는 집들이처럼 격년 이상을 주기로 하는 모임, 그리고 동창 또는 친구 모임, 당모임, 종교모임, 축하모임과 같이 수시로 하는 모임이 있다. 또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오다가다 들르는 일상적인 손님에 대한 접대도 수시로 이루어지며 특히 주민 모두가 가깝게 지내는 농촌 마을의 경우 빈도가 더 높다.

조사대상 가구의 생활접객 빈도는 < 표 1 > 과

같다. 생활 접객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모임의 종류를 보면 일상적인 친척 접대가 112가구 (90.3%), 친척 이외의 손님의 일상적인 접대와 남편 생일잔치가 각각 102가구 (82.3%)로 같게 나왔다.

먼저 남편 생일 잔치를 보면 매년 한다는 응답이 92가구 (74.2%)로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부 생일 잔치의 경우는 이것보다 적은 68가구 (54.8%)로 나타나 주부의 생일잔치 접대 빈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주부의 생일잔치를 안 한다는 응답도 55가구 (44.4%)로서 남편의 생일잔치를 안 한다고 응답한 22가구 (17.7%)보다 훨씬 많은데 이는 젊었을 때에는 남편의 생일 잔치만 하고 주부의 생일 잔치는 안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 며느리를 보거나 자식이

< 표 1 > 손님 접대 빈도

N=124, f(%)

손님접대종류	접 대 빈 도								접대 안하는 가구	계	
	거의 매일	일주일에 1~2번	한달에 1~2번	두세달에 1번	1년에 1~2번	2~3년에 1번	5년 이상에 1번	계			
남편 생일잔치					92 (74.2)	8 (6.5)	2 (1.6)	102 (82.3)	22 (17.7)	124 (100.0)	
주부 생일잔치					68 (54.8)		1 (0.8)	69 (55.6)	55 (44.4)	124 (100.0)	
남편 동창 또는 친구 모임	2 (1.6)	10 (8.1)	14 (11.3)	11 (8.9)	19 (15.3)	1 (0.8)		57 (46.0)	67 (54.0)	124 (100.0)	
주부 동창 또는 친구 모임	3 (2.4)	6 (4.8)	4 (3.2)	14 (11.3)	17 (13.7)	1 (0.8)	1 (0.8)	46 (37.1)	78 (62.9)	124 (100.0)	
당 모 임	1 (0.8)	1 (0.8)	9 (7.3)	2 (1.6)	4 (3.2)			17 (13.7)	107 (86.3)	124 (100.0)	
종교 모임		2 (1.6)						2 (1.6)	122 (98.4)	124 (100.0)	
집 들 이							75 (60.5)	75 (60.5)	49 (39.5)	124 (100.0)	
축하 모임					4 (3.2)	4 (3.2)	15 (12.1)	23 (18.5)	101 (81.5)	124 (100.0)	
일상적인 손님접대	친 척	2 (1.6)	2 (1.6)	21 (16.9)	21 (16.9)	63 (50.8)	1 (0.8)	2 (1.6)	112 (90.3)	12 (9.7)	124 (100.0)
	친척이외의 손님	18 (14.5)	22 (17.7)	17 (13.7)	22 (17.7)	20 (16.1)	1 (0.8)	1 (0.8)	102 (82.3)	22 (17.7)	124 (100.0)

다 장성한 후에 주부의 생일잔치를 한다는 노주부의 구술 내용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남녀평등사회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조선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 우위 즉, 남편 위주의 접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부사이의 관계에서 남녀사이의 차별이 아직도 강하다는 권태환(1996)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남편 동창 또는 친구 모임을 보면 접대하는 경우와 접대 안 한다는 응답이 거의 비슷한데, 1년에 1~2번, 한 달에 1~2번, 두 세달에 1번 한다는 응답이 각각 19가구(15.3%), 14가구(11.3%), 11가구(8.9%)로 나타나 자주 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를 주부 동창 또는 친구 모임과 비교하면 주부의 경우 안 한다는 응답이 78가구(62.9.%)로서 남편의 경우(67가구, 54.0%)보다 훨씬 많았으며, 접대 빈도도 1년에 1~2번과 두 세달에 1~2번이 많은 것으로 보아 주부의 동창 또는 친구모임은 남편의 동창 또는 친구모임에 비해 접대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접대를 해도 남편 친구보다 자주 안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당모임의 경우를 보면 17가구(13.7%)만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산 당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접대 빈도도 한 달에 1~2번 하는 경우가 9가구로서 자주 일어나지 않는 모임임을 알 수 있다.

가장 안하는 모임은 종교 모임으로서 조사 대상 가구중 2가구만이 종교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설되고 문화혁명(1966~1976년)을 거치면서 정상적인 종교활동과 포교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비로소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구 수가 적은 데다가 종교가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나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교 활동이 그렇게 많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 때문인 것 같다.

집들이는 이사를 하거나 새로 살림을 난 경우에 75가구(60.5%)가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아직도 집들이 풍습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조사대상 가구 모두 5년 이상에 한 번이

라는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이사를 자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축하 모임의 경우를 보면 대다수의 가구인 101가구(81.5%)가 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입학, 졸업, 환송회, 환영회 등의 모임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적인 손님 접대에서는 친척 접대가 112가구(90.3%)로서 모임의 종류 중 가장 자주 하는 접대이었다. 접대 빈도는 1년에 1~2번 한다는 응답이 63가구(50.8%), 한 달에 1~2번과 두 세달에 1번 한다는 응답이 각각 21가구(16.9%)로서 똑같이 나왔다. 이는 조선족 사회에서는 친척 관계가 아직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일상적인 손님 접대에서 친척 이외의 손님인 경우가 102가구(82.6%)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접대하고 있었으며, 접대 빈도는 두 세달에 1번과 일주일에 1~2번 한다는 응답이 22가구(17.7%), 거의 매일 한다는 응답도 18가구(14.5%)에 달아 이웃에 사는 주민들이 오다가다 많이 들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한 마을의 주민들끼리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을이라는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까이 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과거에는 남의 집에 마실을 다니는 것이 현재보다 더 보편적이고 자주 일어났었으나, 텔레비전이 각 가정에 보급되고 시청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웃집에 마실 다니는 것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기도 농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sup>12)</sup>.

## (2) 접객 장소 및 접대 내용

생활 접객에 대해 접객 장소를 정리한 것은 <표 2>와 같다.

손님 접대 장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공간은 정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은 옷방이었다.

남편 생일 잔치, 집들이, 축하 모임의 경우에는 이웃집까지도 빌려서 손님 접대를 한다고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손님을 많이 초대하여 접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생활 접객을 식당과 같은 외부 시설에서 하는 가구는 없는 것으로 미루어

12) 고도입(1991). 경기도 농가 안방공간에서 주생활 변화과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118.

〈 표 2 〉 손님 접대장소

N=124, f(%)

손님접대종류	접 대 가구수	접 대 장 소*							
		정지	옷방	한옷방	마당	이웃집	외부 시설	기타	
남편 생일잔치	102 (82.3)	102 (100.0)**	88 (86.3)	1 (1.0)	0 (0.0)	5 (4.9)	0 (0.0)	13 (12.8)	
주부 생일잔치	69 (54.0)	67 (97.1)	52 (75.4)	2 (3.0)	0 (0.0)	1 (1.5)	0 (0.0)	8 (11.6)	
남편 동창 또는 친구 모임	57 (46.0)	57 (100.0)	32 (56.1)	1 (1.8)	1 (1.8)	0 (0.0)	0 (0.0)	8 (14.0)	
주부 동창 또는 친구 모임	46 (37.1)	42 (91.3)	24 (52.8)	1 (2.2)	1 (2.2)	0 (0.0)	0 (0.0)	7 (15.2)	
당 모 임	17 (13.7)	12 (70.6)	8 (47.1)	0 (0.0)	0 (0.0)	0 (0.0)	0 (0.0)	0 (0.0)	
종교 모임	2 (1.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집 들 이	75 (60.5)	71 (94.7)	66 (88.0)	0 (0.0)	0 (0.0)	4 (5.3)	0 (0.0)	7 (9.3)	
축하 모임	23 (18.5)	22 (95.7)	21 (91.3)	1 (4.3)	0 (0.0)	3 (13.0)	0 (0.0)	3 (13.0)	
일상적인 손님접대	친 척	112 (90.3)	110 (98.2)	68 (60.7)	2 (1.8)	0 (0.0)	0 (0.0)	0 (0.0)	8 (7.1)
	친척이외의 손님	102 (82.3)	95 (93.1)	47 (46.1)	0 (0.0)	0 (0.0)	0 (0.0)	0 (0.0)	6 (5.9)

\* 중복응답

\*\*  $\frac{\text{접대장소}}{\text{접대가구수}} = \frac{102}{102} \times 100 = 100$

보아 모두 집에서 접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 생일잔치는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지에서만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정지와 옷방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옷방은 남성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남편의 남자 손님은 옷방에서 접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님을 접대할 때 정지에서만 하는 경우, 정지+옷방에서 하는 경우, 정지+옷방+마당에서 하는 경우, 그리고 이 세 경우 이외의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경우를 다시 정리한 것은 〈 표 3 〉과 같다.

주부의 생일잔치는 남편 생일 잔치에 비해 정지에서만 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손님의 수가 남편 생일잔치 때보다 많지 않고 손님이 여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손님이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여러 공간을 같이 쓰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집들이나 축하모임의 경우에는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지에서만 손님을 접대한다는 응답이 다른 접대의 경우보다 적고 정지+옷방에서 접대한다는 응답이 다른 접대의 경우보다 많았다.

손님 접대 내용을 정리한 표는 〈 표 4 〉와 같다. 응답자 대부분의 경우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알 수



중국 용정지방 달라재 전통농가의 접객 장소와 접객행위

〈 표 3 〉 손님 접대장소

N=124, f(%)

손님접대종류	접 대 가구수	접 대 장 소*				계	
		정지	정지+ 옷방	정지+ 옷방+ 마당	기타		
남편 생일잔치	102 (82.3)	14 (13.8)	69 (67.6)	0 (0.0)	19 (18.6)	102 (100.0)	
주부 생일잔치	69 (54.0)	15 (21.7)	42 (60.9)	0 (0.0)	12 (17.4)	69 (100.0)	
남편 동창 또는 친구 모임	57 (46.0)	25 (43.9)	23 (40.4)	1 (1.7)	8 (14.0)	57 (100.0)	
주부 동창 또는 친구 모임	46 (37.1)	18 (39.1)	16 (34.8)	1 (2.2)	11 (23.9)	46 (100.0)	
당 모임	17 (13.7)	4 (23.5)	8 (47.1)	0 (0.0)	5 (29.4)	17 (100.0)	
종교 모임	2 (1.6)	0 (0.0)	0 (0.0)	0 (0.0)	2 (100.0)	2 (100.0)	
집 들 이	75 (60.5)	3 (4.0)	57 (76.0)	0 (0.0)	15 (20.0)	75 (100.0)	
축 하 모임	23 (18.5)	1 (4.3)	15 (65.2)	0 (0.0)	7 (30.5)	23 (100.0)	
일상적인 손님접대	친 척	112 (90.3)	44 (39.3)	57 (50.9)	0 (0.0)	11 (9.8)	112 (100.0)
	친척이외의 손님	102 (82.3)	48 (47.1)	41 (40.2)	0 (0.0)	13 (12.7)	102 (100.0)

\* 손님을 접대할 때 정지에서만 하는 경우, 정지+옷방에서 하는 경우, 정지+옷방+마당에서 하는 경우를 다시 정리한 것임. 기타는 이 세 경우 이외의 모든 경우를 의미함.

있다.

남편 생일 잔치의 경우에는 식사(56가구, 54.9%)는 물론이고 식사+기타(식사를 대접하고 손님이 돌아갈 때 선물이나 음식, 차비 등을 손님에게 주는 경우)도 45가구(44.1%)가 있었으며, 주부 생일 잔치의 경우에는 식사를 접대하는 경우가 38가구(55.2%), 식사+기타를 접대하는 경우가 28가구(42.0%)로서 접대정도는 남편의 생일과 주부의 생일이 거의 비슷했다. 생일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주로 술이나 계란 한 꾸러미 등을 가지고 왔으나 최근 들어 10원 내지 20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런 손

〈 표 4 〉 손님 접대장소

N=124, f(%)

손님접대종류	접 대 가구수	접 대 내 용				계	
		아무것도 대접안함	다 과	식 사	식사+ 기타*		
남편 생일잔치	102 (82.3)	0 (0.0)	1 (1.0)	56 (54.9)	45 (44.1)	102 (100.0)	
주부 생일잔치	69 (54.0)	1 (1.4)	1 (1.4)	38 (55.2)	29 (42.0)	69 (100.0)	
남편 동창 또는 친구 모임	57 (46.0)	4 (7.0)	3 (5.3)	47 (82.4)	3 (5.3)	57 (100.0)	
주부 동창 또는 친구 모임	46 (37.1)	10 (21.7)	2 (4.2)	32 (69.7)	2 (4.3)	46 (100.0)	
당 모임	17 (13.7)	10 (58.8)	0 (0.0)	7 (41.2)	0 (0.0)	17 (100.0)	
종교 모임	2 (1.6)	2 (100.0)	0 (0.0)	0 (0.0)	0 (0.0)	2 (100.0)	
집 들 이	75 (60.5)	0 (0.0)	1 (1.3)	70 (93.4)	4 (5.3)	75 (100.0)	
축 하 모임	23 (18.5)	0 (0.0)	0 (0.0)	20 (87.0)	3 (23.0)	23 (100.0)	
일상적인 손님접대	친 척	112 (90.3)	1 (0.9)	1 (0.9)	89 (79.5)	21 (18.7)	112 (100.0)
	친척이외 의 손님	102 (82.3)	7 (6.9)	23 (22.5)	68 (66.7)	4 (3.9)	102 (100.0)

\* 손님을 접대할 때 식사 이외에 선물, 음식, 차비 등을 손님에게 드리는 것을 의미함.

님들에게 식사대접만 하는 것이 소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갈 때 음식을 싸 주거나 선물 또는 차비를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편 동창 또는 친구 모임의 경우에도 역시 식사를 대접한다는 응답이 47가구로서 82.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주부 동창 또는 친구 모임의 경우에도 식사를 대접한다는 응답이 32가구, 69.7%로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아무 것도 대접하지 않는다는 응답에서는 남편 손님인 경우에는 4가구, 7.0%인데 비해 주부 손님인 경우에는 10가구로서 21.7%를 차지하여 주부의 손님을 접대할 때에는 신경을 덜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남편 위주의 접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당모임의 경우에는 식사를 대접한다는 가구가 7가구인데 비해 아무 것도 대접하지 않는다는 가구가 10가구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모임은 서로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다른 모임과는 다른 성격을 띄는 것으로 파악된다.

집들이와 축하 모임도 역시 식사 대접을 한다는 응답이 각각 70가구(93.4%)와 20가구(87.0%)로서 가장 많았다.

일상적인 손님 접대에서 친척의 경우에 식사(89가구, 79.5%)는 물론이고 식사+기타를 접대한다는 응답이 21가구(18.7%)인데 비해, 친척 이외의 손님인 경우에는 식사(68가구, 54.8%)는 물론이고 식사+기타를 접대한다는 응답이 4가구(3.9%)가 나온 것으로 보아 친척 접대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친척 이외의 손님은 주로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로서 오다가다 들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대접할 게 있으면 대접하고 그렇지 않고 바쁜 일로 잠깐 왔다거나 대접할 게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대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 사진 1 > 참조)

손님접대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전통적인가를



< 사진 1 > 접대 내용(간단한 음식을 대접할 때)

알아보기 위해 < 표 5 > 와 같이 5문항에 대해 응답하게 했다. 같은 문항으로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물은 최형선(1996)의 결과와 비교하면 응답자들은 더 전통적인 접객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응답의 평균치를 보면 그렇다 쪽에 가까운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접객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항 4번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 결과 외부시설이나 식당을 이용하려고 해도 근처에 없거나 경제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집에서 손님접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도 상당수 있었다.

< 표 5 > 손님 접대에 대한 의식

N=124, f(%)

번호	문항	응답					무응답	평균
		그렇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보통 이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4점)	그렇지 않다 (5점)		
1	손님접대는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9 (87.9)	1 (0.8)	10 (8.1)	0 (0.0)	1 (0.8)	3 (2.4)	1.18
2	백일이나 돌잔치는 집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5 (92.7)	0 (0.0)	3 (2.4)	1 (0.8)	2 (1.6)	3 (2.4)	1.11
3	손님을 초대하면 꼭 집에서 만든 음식을 접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4 (83.9)	6 (4.8)	1 (0.8)	6 (4.8)	4 (3.2)	3 (2.4)	1.32
4	집에서 손님을 접대하지 않고 외부시설이나 식당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32 (25.8)	16 (12.9)	7 (5.6)	18 (14.5)	48 (38.7)	3 (2.4)	3.20
5	손님접대는 집에서 하는 게 더 극진한 접대라고 생각한다.	105 (84.7)	3 (2.4)	1 (0.8)	5 (4.0)	7 (5.6)	3 (2.4)	1.37

2) 가정의례

(1) 접객 경험(부모 세대/현재)

중국 조선족의 가정의례는 이주 초기에는 본토와 꼭 같았으나 자연조건, 역사조건 사회조건 변화로 말미암아 점차 변화되어 많이 간소화되었

지만 기본 골격은 보존하고 있다<sup>13)</sup>. 실제로 가정의례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례에 대해 과거, 즉 부모세대의 경험과 현재, 즉 본인의 경험으로 나누어 질문하였으며 이를 정리한 결과는 < 표 6 > 과 같다.

< 표 6 > 가정의례 접객 경험(부모 세대/현재)  
N=124, f(%)

가정의례 종류		접 대 경 험		계	
		과 거	현 재		
자녀의 백일/돌	과 거*	85 (68.5)	39 (31.5)	124 (100.0)	
	현 재**	115 (92.7)	9 (7.3)	124 (100.0)	
약혼 피로연	과 거	48 (38.7)	76 (61.3)	124 (100.0)	
	현 재	76 (61.3)	48 (38.7)	124 (100.0)	
혼인 피로연	과 거	110 (88.7)	14 (11.3)	124 (100.0)	
	현 재	115 (92.7)	9 (7.3)	124 (100.0)	
환 갑	과 거	89 (71.8)	35 (28.2)	124 (100.0)	
	현 재	35 (28.2)	89 (71.8)	124 (100.0)	
칠 순	과 거	2 (1.6)	122 (98.4)	124 (100.0)	
	현 재	0 (0.0)	124 (100.0)	124 (100.0)	
장례	과 거	107 (86.3)	17 (13.7)	124 (100.0)	
	현 재	32 (25.8)	92 (74.2)	124 (100.0)	
차례/제사	과 거	58(46.8) 1.9회/년***	66 (53.2)	124 (100.0)	
	현 재	55(44.4) 1.8회/년	69 (55.6)	124 (100.0)	
명절	친척	과 거	95(76.6) 2.2회/년	29 (23.4)	124 (100.0)
		현 재	98(79.0) 2.1회/년	26 (21.0)	124 (100.0)
	친척이외의 손님	과 거	53(42.7) 1.1회/년	71 (57.3)	124 (100.0)
		현 재	57(46.0) 1.3회/년	67 (54.0)	124 (100.0)

\* 과거는 부모세대의 경험  
\*\* 현재는 응답자의 경험  
\*\*\* 1년 평균 회수

가정의례 중에서 과거에 가장 많이 해 본 경험이 있는 종류는 혼인피로연이 110가구(88.7%), 장례가 107가구(86.3%), 환갑이 89가구(71.8%)의 순이었다. 현재 경험이 가장 많은 종류는 혼인 피로연과 자녀의 백일/돌로서 똑같이 115가구(92.7%)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장례와 환갑잔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응답자의 연령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주응답자가 아직 환갑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환갑과 장례를 경험한 응답이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에 비해 자녀의 백일/돌을 차린 경우가 훨씬 많아졌는데(85가구에서 115가구) 이는 자녀수가 줄어들고 생활 형편이 나아지면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물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요즘은 많은 가정이 자녀를 하나만 낳음에 따라 돌이 전보다 더 중요한 의례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혼 피로연도 과거에 경험한 가구가 48가구인데 비해 현재 해 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76가구로서 역시 높아진 경제수준과 더불어 혼인 풍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인 피로연은 과거와 현재 모두 접객경험이 많



< 사진 2 > 신동춘 김정렬 씨 환갑잔치(환갑잔치 사진을 재촬영한 것임)

13) 천수산(1994). 중국 조선족 생육풍속에 대한 탐구. 재외한인연구(4). p. 63.

〈 표 7 〉 가정의례 손님 접대장소

N=124, f(%)

가정의례종류		접대경험이 있는가구	접대장소****							
			정지	옷방	한옷방	마당	이웃집	외부시설	기타	
자녀의 백일/돌	과거*	85 (68.5)	82 (96.5)***	74 (87.1)	1 (1.2)	4 (4.7)	12 (14.1)	0 (0.0)	12 (14.1)	
	현재**	115 (92.7)	113 (98.3)	103 (89.6)	2 (1.7)	7 (6.1)	30 (26.1)	0 (0.0)	17 (14.8)	
약혼피로연	과거	48 (38.7)	48 (100.0)	41 (85.4)	3 (6.3)	3 (6.3)	3 (6.3)	0 (0.0)	9 (18.8)	
	현재	76 (61.3)	76 (100.0)	64 (84.2)	3 (3.9)	4 (5.3)	10 (13.2)	0 (0.0)	14 (18.4)	
혼인피로연	과거	110 (88.7)	109 (99.1)	103 (93.6)	5 (4.5)	11 (10.0)	55 (50.0)	0 (0.0)	14 (12.7)	
	현재	115 (92.7)	115 (100.0)	110 (95.7)	7 (6.1)	12 (10.4)	62 (53.9)	1 (0.9)	17 (14.8)	
환갑	과거	89 (71.8)	87 (97.8)	81 (91.0)	5 (5.6)	31 (34.8)	43 (48.3)	1 (1.1)	13 (14.6)	
	현재	35 (28.2)	33 (94.3)	30 (85.7)	2 (5.7)	18 (51.4)	13 (37.1)	0 (0.0)	6 (17.1)	
칠순	과거	2 (1.6)	2 (100.0)	2 (100.0)	0 (0.0)	0 (0.0)	0 (0.0)	0 (0.0)	1 (50.0)	
	현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례	과거	107 (86.3)	46 (43.0)	55 (51.4)	3 (2.8)	4 (4.7)	71 (66.4)	3 (2.8)	4 (3.7)	
	현재	32 (25.8)	12 (37.5)	16 (50.0)	2 (6.3)	2 (6.3)	23 (71.9)	1 (3.1)	0 (0.0)	
차례/제사	과거	58 (46.8)	9 (15.5)	13 (22.4)	2 (3.4)	0 (0.0)	1 (1.7)	0 (0.0)	45 (77.6)	
	현재	55 (44.4)	7 (12.7)	10 (18.2)	2 (3.6)	0 (0.0)	1 (1.8)	0 (0.0)	45 (54.9)	
명절	친척	과거	95 (76.6)	92 (96.8)	77 (81.1)	3 (3.3)	4 (4.2)	0 (0.0)	0 (0.0)	18 (18.9)
		현재	98 (79.0)	93 (94.9)	76 (77.6)	3 (3.1)	4 (4.1)	0 (0.0)	0 (0.0)	17 (17.3)
	친척 이외의 손님	과거	53 (42.7)	49 (92.5)	40 (75.5)	1 (1.9)	3 (5.7)	0 (0.0)	0 (0.0)	10 (18.9)
		현재	57 (46.0)	54 (94.7)	46 (80.7)	2 (3.5)	3 (5.3)	0 (0.0)	0 (0.0)	10 (17.5)

\* 과거는 부모세대의 경험

\*\* 현재는 응답자의 경험

\*\*\*  $\frac{\text{접대장소}}{\text{접대가구수}} = \frac{102}{102} \times 100 = 100$

\*\*\*\* 중복응답임

은 가정의례이다. 요즘에도 혼인은 대부분 전통예식을 따르지만 대개 하루에 끝날 수 있도록 간소화되었다.

환갑잔치는 문화혁명 기간에는 거의 없어졌다가 개혁·개방이후 다시 부활되었다. 최근 회갑연은 조선족 특유의 효의 정신과 경로사상의 영향으로 매우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다. 환갑잔치는 환갑을 맞지 못하고 죽은 부모의 환갑도 차릴 정도로

조선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과례로서 부부가 다 같이 살아 있을 경우 더 크게 차린다<sup>14)</sup>. 잘 차린 전통 다과상을 차려 놓고 주인공이 가운데에 앉는데 농촌에서는 < 사진 2 >와 같이 집에서 잔치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잔치 대신 부모님을 모시고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한다.

차례/제사의 경우에 과거에는 1년에 1.9회인데 비해 현재에는 1.8회로 거의 비슷하나 약간 줄어

< 표 8 > 가정의례 손님 접대 내용

(N=124, f(%))

가정의례종류		접대 경험이 있는 가구	접 대 내 용				계	
			아무 것도 대접 안함	다과	식사	식사+기타*		
자녀의 백일/돌	과거**	85(68.5)	1(1.2)	0(0.0)	42(49.4)	42(49.4)	85(100.0)	
	현재***	115(92.7)	1(0.9)	0(0.0)	41(35.8)	74(64.3)	115(100.0)	
약혼 피로연	과거	48(38.7)	0(0.0)	0(0.0)	30(62.5)	18(37.5)	48(100.0)	
	현재	76(61.3)	0(0.0)	0(0.0)	46(60.5)	30(39.5)	76(100.0)	
혼인 피로연	과거	110(88.7)	0(0.0)	0(0.0)	18(16.4)	92(83.6)	110(100.0)	
	현재	115(92.7)	0(0.0)	0(0.0)	8(5.6)	107(94.4)	115(100.0)	
환갑	과거	89(71.8)	0(0.0)	0(0.0)	5(5.6)	84(94.4)	89(100.0)	
	현재	35(28.2)	0(0.0)	0(0.0)	5(14.3)	30(85.7)	35(100.0)	
칠순	과거	2(1.6)	0(0.0)	0(0.0)	0(0.0)	2(100.0)	2(100.0)	
	현재	0(0.0)	0(0.0)	0(0.0)	0(0.0)	0(0.0)	0(100.0)	
장례	과거	107(86.3)	2(1.9)	0(0.0)	69(64.5)	36(33.6)	107(100.0)	
	현재	32(25.8)	1(3.1)	0(0.0)	19(59.4)	12(37.5)	32(100.0)	
차례/제사	과거	58(46.8)	0(0.0)	8(13.8)	44(75.9)	6(10.3)	58(100.0)	
	현재	55(44.4)	0(0.0)	8(14.5)	41(74.6)	6(10.9)	55(100.0)	
명절	친척	과거	95(76.6)	0(0.0)	0(0.0)	57(60.0)	38(40.0)	95(100.0)
		현재	98(79.0)	0(0.0)	1(1.0)	60(61.2)	37(37.8)	98(100.0)
	친척이외의 손님	과거	53(42.7)	0(0.0)	1(1.9)	37(69.8)	15(28.3)	53(100.0)
		현재	57(46.0)	0(0.0)	1(1.8)	40(70.2)	16(28.0)	57(100.0)

\* 손님을 접대할 때 식사 이외에 선물, 음식, 차비 등을 손님에게 드리는 것을 의미함.

\*\* 과거는 부모세대의 경험

\*\*\* 현재는 응답자의 경험

14) 천수산(1994). 전개서, p. 65

들었다. 즉, 사회적, 경제적으로 과거에 비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서 다른 종류의 가정의례는 더욱 공을 들여 호화롭게 하는 경향이 있으나 제사의식만은 이미 많이 생활 속에서 소실 되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조상숭배의 의식으로서 제사의 의미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보통 3년상을 치르면 기제사도 지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가난한 이민 사회의 특성상 시제나 사당제 등이 자리를 잡지 못한 탓도 있지만, 조상숭배를 봉건적 윤리로 규정 한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으로 소상과 대상, 기제사 이외에는 남아 있는 제례는 없다. 그나마 기제사도 급격히 사라져 가고 있다.

명절 때 친척이나 친척이외의 손님접대는 과거와 현재의 손님 접대 횟수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명절 때의 손님 접대가 가정 의례중에서 중요한 자리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접객장소 및 접객내용(부모 세대/현재)

가정의례의 접객 장소에 대해서도 부모세대의 경험과 현재 응답자의 경험을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가정의례는 평상시의 생활 접객에 비해 옷방에서 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의례적인 행위는 정지보다는 옷방에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차례/제사의 경우에는 옷방에서 지낸다는 응답이 정지보다 많이 나왔으며, 상을 받는 과정이 있는 자녀의 백일/돌, 혼인 피로연, 환갑도 다른 종류보다 옷방에서 지낸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이 나왔다.

가정의례는 평상시의 생활 접객보다 손님을 많이 초대해서 접대를 하기 때문에 접대 장소가 집 내부뿐만 아니라 마당이나 이웃집을 포함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혼인 피로연이나 환갑은 이웃집까지도 접대 장소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장례는 시신을 모신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집을 빌려서 음식을 장만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가정의례에 비해 이웃집을 접대 장소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가정의례시 손님에게 하는 접대 내용은 <표 8>과 같다. 평상시의 생활접객에서는 아무 것도

접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으나 가정의례의 경우에는 과거, 현재 모두 식사는 기본적으로 모두 제공한다고 했다.

자녀의 백일/돌, 혼인 피로연, 환갑의 경우에는 식사+기타(식사를 대접하고 손님이 돌아갈 때 선물이나 음식, 차비 등을 손님에게 주는 경우)를 접대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세 가정의례의 경우에는 손님 접대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세 가정의례의 경우에는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여 상을 잘 차리는 데다가 초대받은 친척이나 하객이 축의금을 상당액 수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식사만 대접할 경우 소홀히 접대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손님이 돌아갈 때 선물이나 음식, 또는 차비 등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약혼 피로연, 차례/제사, 명절때 손님 접대의 경우에는 식사+기타보다 식사만 접대한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Ⅲ.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1) 전통 농가의 가족 수는 핵가족화와 자녀수 감소로 인해 적으며, 자녀의 유학, 또는 직장 관계로 자녀가 외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동거 가족 수가 평균 가족 수보다 적다. 이 지역에서도 이혼향도 현상과 농촌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호도거리 제도 실시 이후 경제수준에 차이가 많이 생겨 소득수준이 가구마다 다르다.

2) 전통 주택은 거의 합경도식 접접이며, 정주간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 내부의 벽을 헐어 내어 방과 창고를 넓게 쓰는 집이 많은데 이는 가족 수와 동거 가족수가 줄어서 벽으로 내부를 분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생활 접객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모이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친척접대와 친척 이외의 접대, 그리고 남편의 생일잔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는 조선족이 친족관계를 중요시하며, 마을 내의 주민들이 허물없이 서로 자주 방문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남녀평등 사회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유교사상이 남아 있는 조선족은 남편 위주의 접객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가장 하지 않는 모임은 종교 모임으로서 아직 종교 활동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4) 생활 접객의 손님접대 장소는 정지와 옷방의 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보통 식사대접을 하고 있다. 식당과 같은 외부시설은 거주지역에서 너무 멀거나 경제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다.

5) 가정의례에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문화혁명이 끝나고 호도거리 제도 실시 이후 경제사정이 나아지면서 자녀의 백일/돌을 차리는 경우가 더 많아졌으며 약혼, 혼인 환갑잔치 등도 더 잘 차리고 있다. 그러나 차례/제사에 대한 의식만은 사라져 가고 있어서 조상 숭배보다는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의 통과의례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6) 가정의례의 접객 장소는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택내부 뿐만 아니라 마당과 이웃집까지 빌려쓰고 있으며, 식사와 더불어 음식이나 선물을 손님에게 주고 있다. 이는 손님들이 축의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더 극진하게 접대하는 것이며 전통적인 접객 의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본 연구는 중국 용정지방 조선족 전통농가의 접객장소와 접객행위를 파악한 연구로서 조선족의 생활과 공간에 대해 총체적인 분석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의 접객행위와 더불어 식당과 같은 외부시설에 대한 잠재수요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와 같은 조사를 연변지역의 다른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국 한족과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1. 강영환(1994), "중국 연변 지구 조선족의 주거 공간 및 생활방식", 한국건축역사연구 5.
2. 강영환(1996), "북한 지역 전통주거에 관한 연구(1)", 한국건축사연구 10.
3. 고도임(1991), "경기도 농가 안방공간에서의 주생활 변화과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4. 고도임(1995), "전남 승주지방 전통농가와 주생활의 변천",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5(1).
5. 고도임(1996), "구술사에 의한 전통농가 노주부의 결혼당시와 현재 주생활의 비교", 한국주거학회 7권 2호.
6. 권태환(1996), 세계의 한민족 : 중국, 통일원.
7. 김봉열(1994), "중국 연변 지구 조선족의 마을과 주거", 한국건축역사연구 5.
8. 김성우(1987), "동양 건축에서의 집과 사람-하나의 동양적 관점으로서의 한국성", 공간 238.
9. 김숙련 등(1991), 「중국 연변」, 김영사.
10. 김종영 외 3인(1996), "중국 조선족 주거의 공간 구성형태와 그 지역 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7권 1호.
11. 리희선(1993), 「조선 건축사 I, II, III」, 도서출판 발언사.
12. 박경휘(1987), 「조선 민족사 연구」, 중국 심양 료녕출판사.
13. 박경휘(1994), 중국 조선족의 의식주 생활 풍속, 집문당.
14. 심혜숙(1992), 「중국 조선족 취락지명과 연구 분포」, 연변대출판사.
15. 신재역(1994), 중국 연변 지구 조선족 주거의 건축적 특징, 한국건축역사연구 5.
16. 울산대 건축연구소(1995), "장재촌", 울산대출판부.
17. 윤복자·박경난(1997), "한국여성의 접객행태와 접객공간 변천", 연세대 생활과학논집(11).
18. 이완기(1994), 「북한에서의 건축사 연구」, 도서출판 발언.
19. 전경수(1989), "중국 동북의 조선족 : 민족지적 개황", 사회과학과 정책연구11(2), 서울대 사회 과학연구소
20. 차명수(1992), "중국 조선족의 결혼 어떻게 달라졌나", 북한.
21. 천수산(1994), "중국 조선족 생육풍속에 대한 탐구 : , 재외한인연구(4).
22. 최형선(1996), "수도권 거주자의 접객행위와

접객공간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23. 한상복·권태환(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대 출판부.
24. 집필소조(1988),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개황, 중국의 우리 민족」, 도서출판 한울.

#### -기타 자료-

1. 이지택(1972. 10. 12~1972. 11. 21), 북간도-남기

고 싶은 이야기들, 중앙일보·동양방송.

2. 중국 인민정치 협상회의 통정현 위원회(1986), 통정문사자료 1, 2, 3집.
3. 용정현지(1989), 용정현 지방지 편찬위원회.
4. 김동화 외 연변대학 중국 조선족 총서 편찬위원회(1994), 중국 조선족 연구, ①, ②, ③.
5. 연변대 편찬위원회(1995), 중국 조선족의 우열성 연구, 서울대 출판사.
6. 국립민속박물관(1996), 중국 길림성 한인 동포의 생활문화, 국제민속박물관 학술 총서 19.